하상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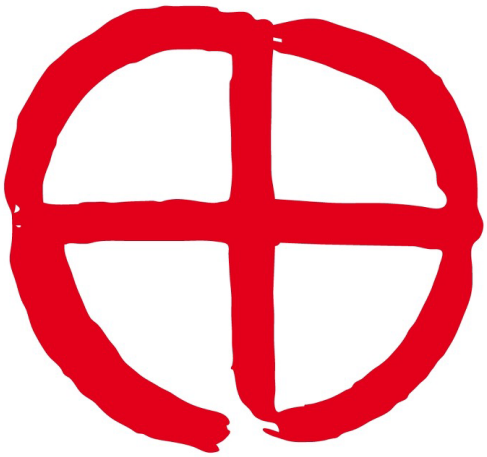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6월 2일
제2003호

주 임 신 부 : 김태진 베네딕토
사 도 회 장 : 강세원 바오로
사 무 실: 703 968 3010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 스: 703 968 3013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부 속 가 |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뉜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옴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나해)

제 1 독 서 **탈출 24,3-8** |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화 답 송 **시편 116(114-115)**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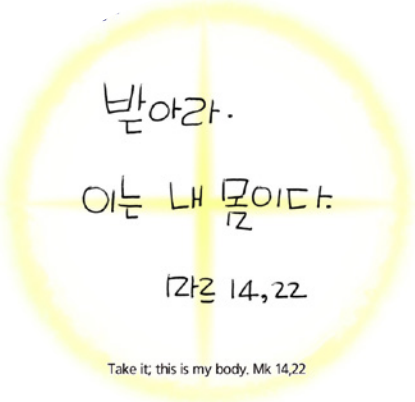
제 2 독 서 **히브 9,11-15**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마르 14,12-16.22-26** |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12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제1독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들려줍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피를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과 법규를 충실히 지킨다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탈출 19,5-6 참조) 복을 내리신다는 계약입니다(탈출 20,6; 신명 30,16 참조).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모세는 소를 잡아 번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탈출 24,4-6 참조).

제2독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는 제사였음을 알려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옛 계약(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새 계약(신약)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중개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대사제’를 통해서, 불완전한 제물인 동물의 피가 아닌 흠 없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시어, 당신의 피를 십자가라는 제단과 우리 위에 흘리시며 맺으시는 ‘완전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신앙의 성조들이 맺은 계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사는 날마다 성찬례 안에서 되풀이되어 기억되고 재현됩니다.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려고 ‘몸’과 ‘피’를 내주신 주님의 깊고 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도 다른 이에게 몸과 피를 내주도록 재촉합니다(2코린 5,14 참조).

(최정훈 바오로 신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아멘’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성찬례는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유일한 사랑의 행위였던 예수님의 실존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찬례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께 축복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고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수난의 밤, 바로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당신의 파스카의 영속적인 기념인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유언을 그 행위에 남기길 원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매년 주님의 이 놀라운 선물, 곧 성찬례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자세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성찬례에 임하거나 무미건조하게 영성체를 하러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위해 제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아멘”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멘”은 확신에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살기 위한 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번이 마치 처음으로 하는 영성체인 것처럼 임해야 합니다.

〈전문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19-06/papa-angelus-eucaristia-prima-volta.html〉

6월 7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 사제 성화의 날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1 은퇴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성체 성혈 대축일)에 교구 은퇴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차 헌금은 교구 신자들과 알링턴 교구를 위해 삶의 대부분을 바친 은퇴한 사제들에게 감사함을 돌려 드리는 기회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첫 영성체식

- 일시 : 6월 2일(일) 오후 2시
- 33명 어린이들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구역 임원교육

- 일시 : 6월 2일(일) 오전 11:30 (B-1,2)

4 KoC 월례 모임

- 일시 : 6월 2일(일) 오전 11:30 (B-3)

5 파티마 세계 사도직 셀모임 야유회

- 일시 : 6월 2일(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나눔터)
- 문의 : 이루까 (703) 254-7963

6 첫 목요 기도모임

-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첫 목요일 기도회를 공지합니다.
- 일시 : 6월 6일(목) 오후 7:30 (성당)
- 강사 : 정해철 라우렌시오 신부(볼티모어 본당 주임)
- 묵주기도와 성체 현시, 찬미와 떼제미사, 특강으로 이어지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병자 영성체

- 일시 : 6월 7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 가족들이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아 세례

- 일시 : 6월 8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역 소공동체 모임의 날

- 매월 두 번째 토요일(6월 8일)은 소공동체 모임의 날입니다. 구역별 소공동체 모임에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특강

- 일시 : 6월 8일(토) 오후 7시- 8:30(대성전)
- 강사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서울대교구장)
- 문의 : 사무실 (301) 260-1981
- 장소 :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11 단체부 월례 모임

- 일시 : 6월 9일(일) 오전 11:30 (A-1,2)

12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6월 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3 성 학대 피해자 · 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 미사

- 일시 : 6월 17일(월) 오후 6:30 (미사 후 친교)
- 장소 : Our Lady of Lourdes Catholic Church (830 23rd St S, Arlington, VA 22202)
- 마이클 버빗지 주교 집전 •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4 2024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6월 16일(일) 오전 11:30 - 오후 4:30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모든 분에게 무료로 음식이 제공됩니다. (To go는 없습니다.)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음식은 구역별로 준비한 음식과 본당에서 제공한 바비큐 파티로 하며, 음식 준비로 인해 구역별로 인원을 파악합니다(친교실).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체별 주문은 없습니다.

15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성당
- 대상 : 현재 K(유치부)부터 7학년까지
- 등록비 : 한 명 $50, 두 명부터 $40
- 등록 기간 : 6월 9일(일) - 7월 28일(일) **(주일 2시 미사 후**, 성당 입구)
- 연락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

묘지 미사 안내

일시 : 6월 8일(토) 오전 10:30

-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상을 떠난 분들과 함께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정하상 성인 성상 주변 조경 공사가 마무리되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 미사를 봉헌하려 합니다. 주변 공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
  ② 고해성사,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6/02 이번 주	애난데일 구역
06/09 다음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5월 26일(삼위 일체 대축일)

봉헌금	$ 7,371.00
교무금	$ 12,290.00
교무금(신용카드)	$ 3,340.00
감사 헌금	$ 640.00
온라인 봉헌	$ 3,360.00
합계	**$ 26,891.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6월 6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6월 7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6월 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별기획 미션** : 지구촌 곳곳으로 -
   [제3부] '내가 너희를 뽑아세웠다.'(일본)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